

200자 안내

世界 여러나라의 社會教育

陳仁權 지음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폭발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요구를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교육의 기능은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은 사회교육에 관한 이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교육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法文出版社 / B5변형 / 224면 / 비매품

醫師의 倫理

오모다카 히사유키 지음 / 申汀植 편역

진정한 의미에서의 '醫'와 그에 따른 근본적인 '윤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강연집. 저자는 의료행위는 의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醫道의 문제는 환자·간호사·의사의 3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전제하면서 의학의 존재이유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의학관등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있게 설명하고 있다.

국제문화출판공사 / A5신 / 252면 / 3200원

Saul Bellow 研究

李泰東 지음

유태계 작가 솔 벨로의 소설들 '축선의 비전'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논문이다. 저자는 솔 벨로의 작품들이 휴머니티를 추구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문학세계의 핵심적인 주제는 '중용의 도'와 그의 연장선인 '축선의 비전'에 기초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출판부 / A5신 / 182면 / 3800원

韓國文學과 傳統論議

成耆兆 지음

한국 근대문학사와 전통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 한국 근대문학과 관련된 과거 전통논의의 특징을 살피고, 移植문학론적 입장의 林和, 白鐵, 趙演鉉의 문학사 방법론을 고찰했으며 그들의 전통관과 문학사에 나타난 입장의 차이를 해명했다. 저자(한국고원대 교수)는 문학사론과 전통관의 한계를 과거 문학의

40 출판저널

이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신원문화사 / A5 / 360면 / 6000원

한국고승일화집

함재수 지음

불교가 이땅에 전래된 이후 위대한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일화 중심으로 엮은 책.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승인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차돈을 비롯해서 원광, 자장, 원효, 혜초 등 신라의 고승들과 고려시대의 의천, 일연, 조선시대의 무학, 서산 등 22명의 고승들에 얽힌 짙막한 일화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여래 / A5신 / 184면 / 3000원

귀하의 時代를 위하여

중국고전연구회 엮음

수호지·서유기·금병매 등과 함께 중국의 4대 奇書로 꼽히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재해석한 책. 간웅 조조의 능력제일주의, 삼고조려를 했던 유비의 인간적 매력, 전략가 제갈공명이 행동배경으로 삼았던 충의 등등 삼국지에 숨어 있는 인간관계의 교훈을 통해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찾아내고 있다.

靑岩 / A5신 / 364면 / 4000원

배낭족 이야기

윤재현 지음

저자가 동남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여행행로를 따라 생생하게 적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에서의 저자의 경험은 이 방면을 여행하려는 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햇빛출판사 / A5신 / 262면 / 2800원

깃발을 날리는 바람은 힘차다

염인희 지음

일간지 신춘문예에 희곡 '부유도'와 「저수지」로 등단한 작가가 그동안 사보에 실었던 짙막한 이야기들을 모아책으로 펴냈다. 자취생활 동료의 이야기 「미션이의 꿈」, 글쓰고 싶다는 용접공과의 이야기 「작가지망생까지」 등등 작가가 직접 생활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글 49편을 실었다. 저자의 대표작품으로는 「1988 통일굿」 「마침내 가리라」 등.

문이당 / A5신 / 252면 / 2800원

신부님 러시아에 가다

조반니노 과레스끼 지음 / 윤경남 옮김

「돈 까밀로의 작은 세계」 시리즈 마지막편. 이 시리즈는 돈 까밀로 신부와 읍장 빼빼네가

벌이는 갈등과 화해를 기본 골격으로 웃음과 교훈을 함께 지어낸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여행하게 된 돈 까밀로가 여행단원들을 한명씩 공산당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작가는 돈 까밀로를 통해 자유와 사랑을 생각해 하고 있다.

진선 / A5신 / 256면 / 3300원

미래를 향하여

조지 부시 지음 / 손길영 옮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쓰여진 미대통령 조지 부시의 자서전. 예일대학을 거쳐 텍사스 석유장비회사원으로부터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인생역정과 하원의원으로 부터 CIA 국장, 부통령을 거치면서 그의 정치철학, 미래에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적고 있다.

동문선 / A5신 / 302면 / 3800원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장의균 지음

87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복역 중인 저자의 옥중 서간집. 1부에는 동화 열여섯 편이 수록됐고, 2부에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시와 편지들, 3부에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을 수록했다. 이밖에 항소이유서와 최후진술서를 4부로 엮었다. 저자는 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다.

힘 / B5신 / 320면 / 4500원

영웅의 나라

이상문 지음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탄흔」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작가의 두번째 소설집. 반미운동을 그린 표제작 「영웅의 나라」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갈등을 보여주는 「敵」 등 13편의 중·단편을 수록했다. 권말에는 문학평론가 홍정선의 작품해설이 덧붙여졌다.

東亞 / A5신 / 368면 / 4000원

머리 만들기 ①②

타고 아끼라 지음 / 정태원 옮김

일본 선요오대학의 심리학교수인 저자의 「머리 만들기」를 옮겼다. 제1장 「머리의 준비운동」을 비롯해 유연성, 직관력, 비약력, 추리력, 관찰력, 분석력, 지구력, 독창력을 기르는 머리운동법을 소개한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총 75개의 문제와 그에 대한 풀이로 엮어진 종합 퍼즐도서.

산하 / 신4·6판 / 212면 / 2500원

딸을 위하여

찰리 웨드 지음 / 유홍렬 옮김

미국 한교회의 목사이자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저자가 딸에게 보내는 25통의 서간집.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 부부관계나 섹스문제 등에

관해 솔직하고 유머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성숙한 여성으로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딸에 대한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이 담겨 있다.

청아출판사 / A5신 / 230면 / 2800원

예화 자료집 ①②③

전요섭 외 엮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분류·정리한 자료집. 가나다로 찾아보기 쉽도록 분류되어 있고, 청소년 백서·인구센서스 등 전문자료집과 일반기사나 책에서 일상에 흔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뽑아 엮었다.

은혜 / A5신 / 각 290여면 / ① 3600원 ②③ 각 3800원

세 여인

시바다 렌자부로 지음 / 유승호 옮김

20대의 세 여인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랑·운명 등을 그린 애정소설. 첫사랑에 실패하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여인, 결혼으로써 자신의 애정을 완성한 여인, 그리고 문단의 신데렐라로 데뷔하는 여인. 이들 세 사람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그 이면에 도사린 함정을 보여준다.

선문 / A5신 / 293면 / 3200원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현상

金光海 지음

저자의 89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현대국어의 類現象에 대한 연구」를 출간한 것. 대부분의 국어학 연구가 통사론으로 흐르는 데 비해 이 논문에서는 어휘에 관해서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국어학회에서 펴내는 국어학총서 열여섯번째권.

탑출판사 / A5신 / 273면 / 4500원

안병욱 희망론

안병욱 지음

철학자이자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인 저자의 에세이집. 제1장 「나의 길을 가련다」, 제2장 「힘은 맑은 강물처럼」, 제3장 「산다는 것의 의미」, 제4장 「운명의 저 별빛 아래」로 구성돼 있다. 저술이 많기로도 유명한 저자의 전집 열여덟번째권이며, 전체 저서로는 32권째의 책이다.

삼육출판사 / A5신 / 303면 / 3000원

철학과 기독교 신앙

폴린 브라운 지음 / 문석호 옮김

종교 철학자인 저자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번역한 책. 중세철학의 뿌리가 된 고대철학 및 어거스틴에 대한 통찰로부터 시작하여 근세철학 및 현대철학이 지닌 문제성을 파헤쳤 다. 또한 철학을 종교적 신앙과 관련지어 분석했고, 서양사상가들의 지적운동을 조망하며 그것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개괄하고 있다.
기독교문서선교회 / A5신 / 459면 / 6000원

슬픔과 그 허무의 바다

박재삼 지음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중진시인의 대표 에세이집. 「보람있는 발자국」등 4부로 되어 있다. 어린시절, 바다를 바라보며 20여년을 살아온 시인에게 “강물이 바다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더할 수 없는 허무를 느낀” 유년의 기억이 남아 있다. 그 편편의 상념들을 모았다.
예가출판사 / A5신 / 297면 / 3300원

월간지

사회와 사상 (89년9월·창간 1주년 기념호)

[머리글]마흔네번째 맞는 8·15아침에 민족사를 생각한다(박현재)

[기획토론]한국언론의 반민족성·반민중성을 따진다(김종철 / 이효성 / 김효재)

[특집]90년대 세계정세의 대전환을 총망한다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인가 교착인가(이삼성) ▲소련의 평화옹호정책 그 국제정치적 파장(김세균) ▲유럽통합과 선진자본주의의 새로운 공세(황병덕) ▲사회주의는 세계정세 재편의 추동력인가(유영구) ▲일본자본주의의 장기전락과 아시아태평양공동체(전찬환)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세계사적 사명

[기타] ▲민족문제와 천주교사제단운동(박태순) ▲평양축전의 입수경양 동행취재: 그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다(안동일) ▲토지공개념과 독점자본주의(최병두)

한길사 / A5신 / 388면 / 3300원

동서문학(89년 9월호)

[기획특집]한국문학 리얼리즘, 어디까지 왔나? ▲리얼리즘 정신과 새로운 소설적 징후들(이남호) ▲리얼리즘과 한국문학사(홍정선) ▲현대계 리얼리즘 논의의 성격(김명인) [특별기고] '韓水山 필화사건' 顛末記(鄭奎雄)

[연재평론]한국문학사연구노트·2 ▲李箕永論-「고향」에서 「두만강」까지(김윤식)

[단편소설] ▲無碍(탈)(鄭漢淑) ▲우리時代의市民(김국태) ▲말보라의 사과(한정희)

[시] 朴善雅 / 金鍾海 / 李時英 / 이성선의 동서문학사 / A5신 / 380면 / 3800원

언론과 비평 (89년9월호)

[좌담]언론인의 직업윤리를 말한다(유재천 / 노항기 / 이청 / 강철원)

[기자수첩] ▲광주시청「5·18사태 상황일지」취재이야기(정건조) ▲이철규군 번사사건 취재

이야기(위성운) ▲백담사 뒷산에서 특종한 이야기(김성남)

[문제분석] ▲취재원 보호와 기자정신(김유원) ▲불고지죄를 따진다(박성민) ▲토지공개념과 한국경제(안충영) ▲왜 사회는 재벌을 비판하는가(조동성)

[오늘의 논의와 초점] 過소비사회-이것이 문제다 ▲과소비에 길들여진 군상들(이광복) ▲주부가 보고 느끼는 과소비현실(임규완) ▲과소비의 사회학(김문조) ▲과소비의 경제학(임종철)

[문제분석]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이상혁) ▲레저산업은 향락산업이 아니다(이계익)

언론과비평사 / B5 / 248면 / 3000원

계간

현대시세계 (1989년 가을호)

[시집기행] 돌 속의 사랑-이성복 시집「남해금산」(김훈)

[신작시] 이하석 / 이성복 / 김명선 / 박재구 / 김해순 / 성석제 / 송찬호 / 류환 / 구광보 / 조은 / 강규

[평론·평전] ▲완전주의자의 시와 현실(이운택) ▲기형도, 혹은 길위에서의 중얼거림(장석주) ▲윤동주 序說·下(고은)

[번역평론] ▲사막을 지배하는 어제·下-이브 본느프의論(J.P. 리샤르) ▲차연 différence(차끄 데리다)

[나의 삶 나의 시] 열리고 나아가고 또 돌아오기 위하여(강은교)

[그림에세이] 草芥日記·1 (김영태)

[중남미 현대시 특집] 중남미의 반시 니카노르 빠르라·올리베리오 히론도·세사르 바예호(민용태)

[시집서평] 김동원 / 김명인

청하 / A5신 / 226면 / 3000원

화제의 책

論語新解

金鍾武 지음



四書三經의 첫머리에 놓이면서 오랫동안 인류의 고전으로 읽혀온 「論語」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論語新解」가 원로사학자이자 한학자인 金鍾武에 의해 최근 상재됐다. 특히 이 책은 종래 漢唐의 訓詁, 宋의

性理, 淸의 考證 3단계를 거쳐오는 동안 「논어」 해석에 적지 않은 오류가 생겨났다는 주장 아래, 이른바 「과학적 文理解」의 방법론에 의한 「논어 새로 읽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책의 구성은 「논어」의 각편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원문과 해석을 차례로 실고, 다시 권말에 「新解」의 근거와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는 해설을 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대표적인 영역본 논어인 제임스 레그의 「Confucian Analects」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 그 오류를 바로잡은 글도 같이 실었다.

교통사고로 와병중이던 저자의 구술을 제자들의 도움으로 정리하여 펴낸 책이라는 점도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古書의 독특한 윤곽선을 살린 편집체제가 돋보인다.

민음사 / A5신 / 508면 / 8500원

이색출판

虛詞辭典

金元中 편저



한문문장을 구성하는 특수한 언어조직의 하나로서 한문이해의 첩경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虛詞의 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풍부한 용례를 곁들인 국내 최초의 「虛詞辭典」이 간행됐다.

모두 691개의 허사를 수록, 각각의 품사,

용법, 현대적 의미, 용례를 상세히 밝혔고, 허사이면서 實詞의 의미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이 「참고란」을 두어 그 독해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字典의 의미만을 갖는 실사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허사의 의미와 본질을 사전의 형태로 체계화함으로써, 종래 多讀과 암송에 의존하던 한문독해의 文理를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돋보인다.

항목의 배열은 국제적 통용규칙인 漢字拼音字母순을 따르는 한편 권말에 筆劃, 字音, 部首 색인을 첨부하여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배려했다. 1985년과 86년 각각 중국에서 발행된 「古代漢語虛詞通釋」 및 「古漢語虛詞手冊」을 주로 참조하여 편찬된 책으로, 편저자는 중남대 박사과정 재학중인 젊은 연구자.

현암사 / A5신 / 624면 / 12000원

자료집

嶺東地方 郷土史研究資料叢書 (1)

方東仁·李揆大 편



영동지방의 郷約과 契에 관한 각종 자료를 모은 「영동지방 향토사연구자료」 제1권이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에 의해 출간됐다.

향촌사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향촌의

자치질서가 중앙권력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일고 있음을 감안, 이 책은 현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인 자료의 수집·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영동지방의 향약·睦隣契·講信契·洞契·鄉案·族會帖 등과 약국계를 비롯한 각종 契의 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사회·행정·민속·교육 등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통상 嶺東九邑으로 지칭되는 영동지방을 수집범위로 삼았지만, 편자들의 말대로 강릉지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연구소는 앞으로 이 지역의 토지문서·호적문서·학교관계문서·鄉會에서의 결정문서 등도 정리, 간행할 계획이다.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 B5 / 402면 / 비매품

